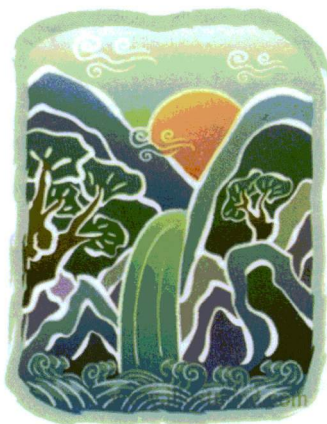




크고 작은 변화가 예고되는 2008년을 맞으면서 인사드립니다.
 그간 한국여성재단으로 보내주신 사랑과 격려 감사드립니다.
 2008년 한해도 '딸들에게 희망을' 전하는 여성재단이 되도록
 성실히 일하겠습니다.
 건강하고 평화로운 한해 되십시오.

한국여성재단 드림